

## 법제처,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

-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령정보 서비스 모델 모색해



- 법제처(처장 김외숙)는 법령정보관리원, 학계·민간 전문가와 11월 29일 프레지던트 호텔(서울 중구 소재)에서 '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'를 개최했다.
-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행사는 9년째를 맞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4차 산업혁명과 스낵컬처\*로 대변되는 시대흐름에 맞춰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.
  - \* 스낵컬처: 과자를 먹듯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
- 제1세션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령정보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송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박진호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고, (주)와이즈넷 권우영 차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.



- 박진호 교수는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발달로 산업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, 우리의 삶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언급했다.
- 또한,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법령정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.
- 제2세션은 스낵컬처의 시대의 새로운 콘텐츠 제공 및 홍보방안을 주제로 (주)카카오 이한빛 차장이 발표하고, 언론진흥재단 최일도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했다.
  - 참석자들은 최근 홍보 마케팅 사례를 언급하면서,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생활법령정보를 카드형 콘텐츠·웹툰 등 시각화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.



- 또한, 올해 세미나는 생활법령정보 기자단,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초청해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했다.

\* 생활법령정보/대한민국 정책기자단: 개인 블로그에 생활법령정보/정부정책에 대한 기사 작성·게재를 위해 활동하는 기자단, 학생 등 일반국민으로 구성

- 김외숙 처장은 “국민이 주인인 나라, 국민이 주인인 정책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늘 국민 요구에 세심하고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”라며, -“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- 한편, 생활법령정보(<http://www.easylaw.go.kr>)는 어렵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령을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한 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법령서비스이다.
  - 매일 3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데, 가정 법률, 창업, 소비자, 복지, 근로·노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286건 제공하고 있다.
  - 또한, 외국인 노동자,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캄보디아어 등 총 12개의 언어로 법령정보를 번역해 제공 중이다.



## 스무 여섯살 지방자치 진정한 분권의 길을 모색하다

– 법제처, 학계와 현장의 소리를 아울러 자치법제 발전 세미나 개최



- 법제처(처장 김의숙)는 학계,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법제 발전 방안을 공유·확산하는 데 앞장선다.
  -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가 추진해 온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추진된다.
- 법제처는 11월 29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(서울 중구 소재)에서 개최된 2017년 자치법제 발전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.
  - 이번 세미나에는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, 서울시립대학교 문상덕 교수를 비롯한 학계,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장 등 지방자치 관련

단체,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본부장 등 연구원,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,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등 지방자치법령 관련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등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.

- 이 날 세미나는 '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'과 '지방자치단체의 정부입법 참여 강화 방안'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.
  - 첫 번째 주제에서는 최환용 본부장이 발제자로서 지난 지방자치 26여 년간의 자치권한 배분의 현실을 평가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조직·재정·입법 등 각 분야의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했다.
    - 나아가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간 조화로운 입법을 위하여 법령 제·개정 시 조례 위임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,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.
  - 두 번째 주제의 발제자인 류지웅 박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'제2 국무회의' 신설처럼 정부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했다.
    - 또한, 법제처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도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지방자치단체(협의체)가 정비과제 발굴의 필수적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.
- 김의숙 법제처장은 인사말씀에서 “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법령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”라고 말하면서,
  - “이번 세미나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이 공감하는 정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


## 김외숙 법제처장, 육군 제11항공단 위문 방문

- 영공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격려



- 법제처(처장 김외숙)는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12월 1일(금)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육군 제11항공단을 방문하였다.  
- 김외숙 법제처장은 제11항공단 소개 브리핑을 받은 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공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.



-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“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제11항공단에 감사하다”면서,  
- “평창올림픽이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와 빈틈없는 경계태세로 대한민국의 영공방위를 굳건히 수호해 주기를 바란다”라고 당부하였다.

